

TV에 나타난 농업분야 방송 뉴스 도식

노광준* · 김성수**

*경기방송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 Study on the News Scheme of the Agricultural Broadcasting News

Gwang-june Rho* · Sung Soo Kim**

*Radio Producer, Gyeonggi Broadcasting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agricultural and rural news in mass media reporting. This study analyzed the representa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news of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established in 1947 as a public service broadcaster and the Seoul Broadcasting System (SBS), established in 1990 as a private service broadcaster in Korea. There has been criticisms of isolated and anecdotal reporting of agricultural and rural issues, thus, leading to negative public perception mainly influenced by mass media even though there has been increases in the publicity activities regards agricultural policies in the KBS and SBS broadcasting news.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veal the merits of the preceding criticism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37 news items issued between September 2004 and August 2005 were analyzed via content and framing analysis research methodologies.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Content analysis of agricultural and rural news revealed that the lack of relative quantity and 'in-depth analysis' in agricultural reporting and the thematic concentration on negative news and flash events were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Korean broadcasting news. 2. The quantity of agricultural news was relatively insufficient and qualitatively superficial and stereotyped lacking in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and rural issues and inclined toward flash events and crisis-oriented.

Based on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offered;

- 1) Agricultural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changing the images of rural society and farmers implementing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in the future, and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considered in reporting agricultural and rural news.
- 2)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broadcast media on the agricultural information system.

Key words: Agricultural and Rural News, Television News, News Scheme, Themes of News, Content Analysis.

I. 서론

대중매체 가운데 TV의 뉴스는 관심도 뿐 만

아니라 영향력과 신뢰도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다(한국방송광고공사, 2004). 특히 각 방송사의 밤 9시 뉴스는 요일에 관계없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어 흔히 'TV 저널리즘의 백미(白眉)', '온 국민의 눈과 귀'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나 객관 현실의 반영으로 믿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대부분의 언론학자들은 뉴스가 '사건 그 자체'가 아닌 '그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며,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맞춰 선택되고 각색되어진 이데올로기적 매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강명구, 1994). 이러한 현실 구성 이론에 입각한다면 뉴스 속에 나타난 농업의 현실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믿어지는 현상'일 뿐 객관적 현실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특정한 기호를 선정하여 특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교우위론' 이나 '농업유지론' 등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온 국민이 함께 보는 미디어 농업뉴스'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마을 운동이 일던 60, 70년대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TV, 라디오 등 농가방송의 실효성을 묻는 효과론적 분석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관련 보도 연구는 80년대 초반에서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중앙언론사가 제공하는 농업 관련 뉴스의 양과 질을 평가하고 있는데, 농관련 사안에 대한 적은 지면 할애와 하위이슈화(권화섭·최익수, 1982; 김태홍, 2003), 심층 분석이 없는 피상적인 단순 보도(장호순, 2003; 윤석원, 2004), 기사 작성시 농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부족, 농민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엘리트 중심적 보도 성향(김연중, 1994), 농가부채나 정부예산 지원에 대한 왜곡전달 및 부정적 보도, 비교우위론 대변 등 개방에 대한 일방적 시각(이정호, 2004), 농민의 감정적 반응과 시위의 폭력성만을 강조하는 범/질서 프레임(박용진, 2004) 등 농업 보도의 피상적, 도시 중심적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선진 농업 국가인 프랑스

국민들의 58%가 프랑스의 TV, 라디오, 인쇄매체들이 자신들에게 농업과 농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www.terrami.org/agroinfor/docu_view.html?cid=1369, 2005. 3. 30), 미국의 농업관련 언론종사자들은 미국의 일간지들이 농업관련 기사를 제공함에 있어 피상적이고, 농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부족하며, 걸치레식 이벤트나 '눈에 띄고 토속적인' 흥미성 기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Reisner & Walter, 1994). 만일 이러한 지적이 정확하고 구조적인 것이라면 매 시간 속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뉴스의 홍수'시대에 살면서도 오히려 농민은 미디어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농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도시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 농촌 관련 이슈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모순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많은 문화연구학자들도 주요 대중매체에 식품안전성이나 환경 파괴, 정부예산 지원 비리 폭로 등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지속될 경우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지원이 감소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Hall, Connell, & Curti, 1977; Trew, 1979a; Protesse & McCombs, 1991). 밤 9시 뉴스를 비롯한 TV 방송 뉴스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이민웅, 1991; 부경희, 1996; 강만석, 1999; 손승혜·이창현, 1999; 윤호진·이동훈, 2004; 이재경, 2004)는 한국의 방송 뉴스가 영국 BBC, 일본의 NHK, 미국의 네트워크 뉴스와 비교해 구성적으로 단순하고 심층성이 떨어지며, 주제적으로는 유독 정치 경제와 사건 사고 기사에 집중한다는 특징을 발견해 농업 관련 뉴스에 대한 피상적, 부정적 보도 성향을 짐작케 한다. '농업, 농촌을 묘사하는 틀'로서 방송 뉴스가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접하는 개인과 대중, 그리고 정책형성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방송뉴스의 농업관련 보도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향력 있는 매체에 의한 농업관련 뉴스의 보도성향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로 대별되는 KBS와 SBS의 최근 1년 동안의 저녁종합뉴스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미디어 텍스트 분석방법인 내용분석법을 사용했다. 내용분석법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객관적·수량적으로 분류, 일정기준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 관련 TV 뉴스의 보도 분량과 보도주제를 분석하였다. 보도 분량은 형식적 측면의 뉴스 아이템 수와 아이템 길이를 포함하며 이를 기존 방송뉴스 연구결과(부경희, 1995; 손승혜, 1999; 이준용, 2004)와 비교, 다른 분야 뉴스 보도와 비교해 상대적인 농업 뉴스 보도량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뉴스의 현실 구성과 뉴스 도식

뉴스는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 객관적 현실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희박해진 이른바 '탈사실 시대'에 뉴스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믿는 언론학자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강명구, 1994). 다시 말해 뉴스란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무한한 세부사항들 가운데 단편들을 선택하고 해석한 '구성된 현실'이며(Tuchman, 1978), 이러한 과정에서 미디어는 현실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고(Hall, 1982) 특정한 기호를 선정하여 특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말인데(백선기, 2001), 이를 객관성의 현실구성이론이라 부른다. 즉 텔레비전 뉴스는 외부세계나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개인의 현실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같은 개인의 사회적 현실구성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로서 일상감각을 통해 지각, 경험하게 되는 객관적 사회현실(objective social reality)이고, 둘째는 매체내용 또는 예술이나 문학과 같이 객관적 현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뜻하는 상징적 사회현실(symbolic social reality)이며, 셋째는 객관적 현실과 상징적 현실이 개인의 현실이미지에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주관적 사회현실(subjective social reality)이다.

이러한 뉴스의 현실 구성 방식을 살펴봄에 있어 제시된 방법론적 개념이 바로 뉴스 도식(News Scheme)이다. 문장이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 구문법(syntax)이 필요하듯이, 담론의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관습적이거나 규범적인 형식이 필요한데 뉴스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담론의 하나로써 일정한 도식을 따르게 된다. 크게 뉴스의 형식을 규정하는 형식적 구조와 뉴스의 내용적 구조를 구성하는 주제적 구조에 따라 구체적인 뉴스 담론의 구성을 지배하는 도식을 뉴스 도식이라고 한다.

2. 일반적인 TV 뉴스의 현실 구성 방식

최근 들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저녁 종합 뉴스에 대한 보도 분석이 활발하다. 비록 농업관련 뉴스에 대한 분석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주요 방송사들의 저녁 종합 뉴스에 대한 보도 방식은 농업 분야 뉴스 보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현실 구성 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특히 TV 저널리즘의 백미로 꼽히는 저녁종합뉴스는 시청자들에게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청각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 일본

의 공영방송 NHK의 저녁 종합 뉴스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KBS와 MBC는 다양한 기사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 BBC와 일본 NHK는 주요 기사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보도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저녁 종합 뉴스가 생생한 영상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한편 피상적 취재와 선정적 화면 구성으로 심층 분석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윤호진·이동훈, 2004).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방송 뉴스분석 결과는 한국 방송 뉴스를 다른 국가의 뉴스와 비교해 정형화된 도식을 발견한 연구(이준웅·황유리, 2004)를 통해 정리된다.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은 (1) 전체적으로 75초 내외의 짧은 뉴스를 약 35개 정도 나열적으로 배열하는 특징을 보이며, (2) 뉴스 제시 방식은 앵커의 도입과 기자 리포팅으로 구성된 전형적 형식을 따르고, 제목과 자막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장연결은 거의 없는 형식적 특성을 보여준다. 내용적으로는 (3) 다양한 주제를 보도하지만 특히 정치와 경제, 범죄와 사건에 주목하고 (4) 보도자료나 인터뷰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며 자료 조사나 심층 분석에 근거한 심층적 접근은 제한되어 있고, (5) 뉴스 가치에 있어서도 부정성이 높고 갈등성과 영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

3. 농업 분야 뉴스의 현실 구성 방식

80년대 초반에 이미 권화섭과 최익수(1982)는 중앙일간지와 지방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분석을 해본 결과, 지방지에서 주요기사로 다뤄지는 문제마저 중앙지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는 등 중앙일간지들이 농수산 관련보도를 보도 분량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위 이슈(minor issue)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태홍(2003)은 50-70면을 발행하는 과점 중앙지도 농·어업에 관한 기사는 물론이고 지방

뉴스에 할애하는 지면은 단 1면에 불과하고 농업기사는 농민들이 집단행동에나 나서야 취급하는 정도임 등을 들어, 오늘날 농업과 어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도 상당한 원인이 농어촌 관련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지 못한 중앙언론의 무관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쌀의 해였던 2004년 쌀 재협상과 DDA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앙 신문사들의 보도 건수는 매우 작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윤석원, 2004),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문화일보 등 6개 일간지가 5개월간 보도한 쌀 관련 기사건수는 193건으로서 한달 평균 38건, 1개 일간지당 한달 보도건수는 6-7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6개 일간지의 총 보도건수 193건중 논평 없이 단순하게 사실만 보도한 것이 93개로써 4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북미 지역과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9년 캐나다 일간지 30개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캐나다 일간지들이 가장 많이 다룬 주제 분야는 '인간적 흥미' 분야로 15.8%를 차지했고, 다음은 스포츠(15.0%), 정치 분야(12.7%)의 순서였고 '농업'은 1.5%에 그쳤다(Scanlon, 1969). 1995년 캐나다 언론인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가 선정한 '축소 보도된 톱 10 기사'에서 농업 관련 기사는 모두 3개(3위, 9위, 10위)를 차지했다. 새로운 GATT 규정이 농업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거나, 세계은행 프로젝트가 농촌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 물고기 양식의 환경적 위험성을 다룬 기사들이었지만 하나같이 중앙 언론에 의해 외면당했다(Doskoch, 1995).

농업 분야에 대한 GATT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첨예한 이슈였으나, 정작 미국의 중앙 언론사들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경미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1월부터 1992

년 12월 15일까지 미국의 3대 일간지(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의 농업 분야에 대한 GATT 협약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사들이 비즈니스 면의 하단에 작게 머물러 있었다. 당시 GATT 협상 자체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총성없는 전투'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나 이들 신문들의 보도는 심층분석이 없는 단순보도나 미국 무역담당자들의 계산 결과만 인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LA 타임즈의 경우 1992년 한해동안 협상에 직면한 유럽 농민들의 문제를 진단한 단 한 건의 분석 기사도 실지 않았다(Balter, 1993).

그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명(Pawlick, 1998)과 저널리즘적 설명(Reisner & Walter, 1994)이 있다. 우선 Pawlick (1998)은 농업 관련 보도의 위축을 언론의 상업화 경향과 광고주의 반응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고주에게 시장(market)으로 정의될 수 있는 3대요인-인구, 소득, 구매의지-면에서 농업, 농촌의 현실은 급격한 농가인구(population)의 감소, 농업소득(money)의 감소, 구매의지(the willingness to buy)의 감소 등으로 광고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이는 지면축소와 관련 프로그램 폐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Reisner와 Walter (1994)는 다음 3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농업 관련 뉴스의 출처는 정부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적인 뉴스 수집 '망' 바깥쪽에 있어 취재가 어렵다. 둘째, 일간지 기자들은 농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현상을 조망할 수 있는 사전지식과 포괄적인 이해 등 준비된 'frame'이 부족하다. 셋째, 도시민 독자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편집 관행 속에 농업뉴스는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속한 요소로 분류된다. 이런 점들은 중앙 언론사에서 취급하는 농업 관련 뉴스가 단순히 양적으로 적게 보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사

회적인 중요성 보다는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에 치중하거나, 갈등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기울게 한다는 점 (Reisner & Walter, 1994)에서 주목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농업 관련 TV 뉴스로는 KBS(한국방송)의 저녁 9시 뉴스와 SBS(서울방송)의 저녁 8시 뉴스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농업 분야에 대한 도시민의 현실인식에 있어 TV 매체가 가장 큰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존연구(김종숙, 1994; 오세익, 2004)를 참고한 것으로, TV 매체 가운데 주요 방송사의 저녁 9시 뉴스는 영향력과 신뢰도, 시청률 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검색어가 '뉴스'이며(한국방송광고공사, 2004), 대부분의 뉴스는 공중파 TV뉴스나 신문뉴스를 재편집해서 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디어를 둘러싼 다매체, 다채널 환경변화에 있어서도 주요 방송사의 저녁 9(8)시 뉴스는 여전히 유의미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방송사를 KBS와 SBS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 방송뉴스는 방송사별로 편성과 내용, 그리고 포맷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준웅·황유리, 2004)에 동의하나,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뉴스 기사의 객관성 및 중립성, 시청률 면에서 본 연구를

1) 김종숙(1994)은 농업에 관한 도시민들의 정보입수 경로로서 텔레비전(51.2%), 신문(27.7%), 친척이나 친지(11.8%) 등의 순서임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10년 뒤에 실시된 오세익(2004)의 도시민 조사에서도 농업에 관한 정보입수 경로로 텔레비전(55%)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농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여론 형성에 있어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SBS는 민영방송사로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농업 관련 뉴스를 공영방송인 KBS와 대비해 어떤 방향으로 보도하는지 유사성과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기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설정하였다. 2004년 상반기의 경우 조류독감과 광우병 발병, 대통령 탄핵과 국회의원 총선거 등 특이사안들이 몰려있어 농업 관련 뉴스의 전반적인 성향을 고찰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4년 9월1일로 분석시점을 조정하였다. 다만 농업 분야의 모든 일정은 수확기부터 이듬해 수확기 이전까지 1년간의 영농활동에 근거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 동안의 농업관련 뉴스를 분석하였다.

KBS와 SBS의 인터넷 '뉴스다시보기' 검색사이트를 통해 설정된 분석기간 중 방송된 KBS 9시 뉴스와 SBS 8시 뉴스들 중 농업 관련 뉴스를 수집하였다. 농업과 관련된 뉴스를 수집하기 위해 제목 및 내용에서 주제를 '농업', '농촌', '농민' 3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농업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뉴스들을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즉,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도와 화면, 멘트 어느 한쪽에

도 등장하지 않는 보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선택과정을 통해 추출된 뉴스 기사의 아이템 수는 KBS 저녁 9시 뉴스의 경우 176건, SBS 저녁 8시 뉴스의 경우 120건으로 총 296건의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수집된 뉴스들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객관적·수량적으로 분류, 일정기준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 관련 TV 뉴스의 보도 분량과 보도주제를 분석하였다. 보도 분량은 형식적 측면의 뉴스 아이템 수와 아이템 길이를 포함하며 이를 기존 방송뉴스 연구결과(부경희, 1995; 손승혜, 1999; 이준웅, 2004)와 비교, 다른 분야 뉴스 보도와 비교해 상대적인 농업 뉴스 보도량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IV. 결 과 분 석

1. 농업분야 방송 뉴스의 형식적 특성

먼저, TV 방송뉴스에서 농업분야 보도의 형식적 특성으로 아이템 수와 방송시간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표 1〉 TV방송뉴스에서의 농업분야 보도 분량

단위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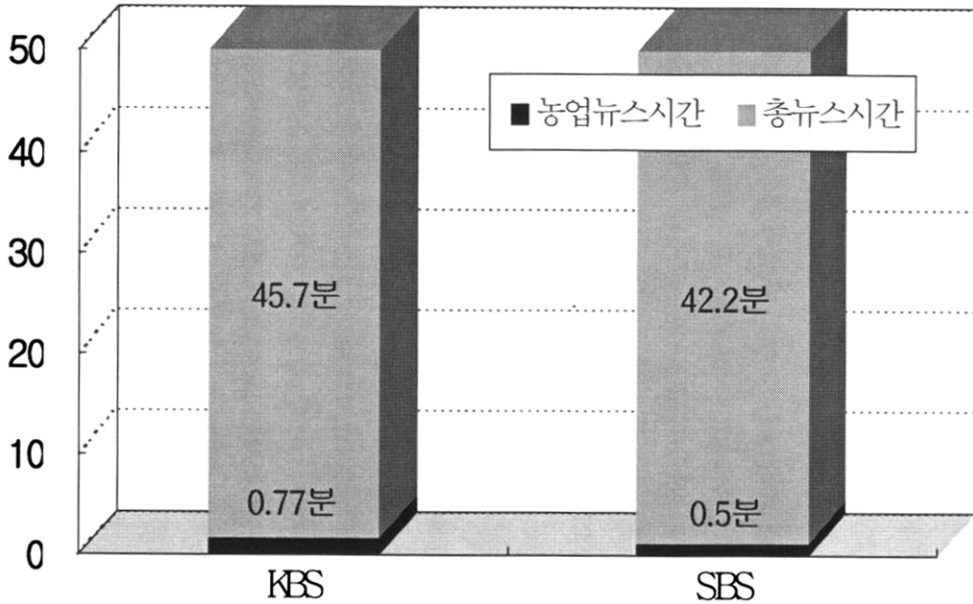
변 수	구 분	아이템수(건)			방송시간(분)		
		전 체	KBS	SBS	전 체	KBS	SBS
방송시기	2004. 9월	36(12.2)	21(11.9)	15(12.5)	55.5(12.0)	32.9(11.7)	22.6(12.4)
	2004. 10월	32(10.8)	17(9.7)	15(12.5)	52.5(11.3)	29.5(10.5)	23.0(12.6)
	2004. 11월	43(14.5)	25(14.2)	18(15.0)	74.2(16.0)	46.7(16.6)	27.6(15.1)
	2004. 12월	34(11.5)	20(11.4)	14(11.7)	49.3(10.6)	29.8(10.6)	19.5(10.7)
	2005. 1월	13(4.4)	7(4.0)	6(5.0)	21.5(4.6)	11.6(4.1)	10.0(5.5)
	2005. 2월	31(10.5)	18(10.2)	13(10.8)	55.2(11.9)	34.5(12.3)	20.7(11.3)
	2005. 3월	16(5.4)	8(4.5)	8(6.7)	27.2(5.9)	12.0(4.3)	15.2(8.3)
	2005. 4월	24(8.1)	16(9.1)	8(6.7)	31.3(6.7)	21.4(7.6)	9.9(5.4)
	2005. 5월	11(3.7)	8(4.5)	3(2.5)	15.8(3.4)	11.2(4.0)	4.6(2.5)
	2005. 6월	16(5.4)	11(6.3)	5(4.2)	22.8(4.9)	16.5(5.9)	6.3(3.5)
	2005. 7월	19(6.4)	11(6.3)	8(6.7)	27.3(5.9)	14.9(5.3)	12.5(6.8)
	2005. 8월	21(7.1)	14(8.0)	7(5.8)	31.8(6.8)	20.8(7.4)	11.0(6.0)
방송요일	월요일	44(14.9)	30(17.0)	14(11.7)	76.1(16.4)	53.4(19.0)	22.6(12.4)
	화요일	40(13.5)	29(16.5)	11(9.2)	63.8(13.7)	48.3(17.2)	15.5(8.5)
	수요일	41(13.9)	25(14.2)	16(13.3)	62.2(13.4)	37.7(13.4)	24.5(13.4)
	목요일	45(15.2)	29(16.5)	16(13.3)	71.5(15.4)	48.2(17.1)	23.3(12.8)
	금요일	46(15.5)	25(14.2)	21(17.5)	66.7(14.4)	37.9(13.5)	28.8(15.8)
	토요일	40(13.5)	17(9.7)	23(19.2)	63.4(13.6)	24.7(8.8)	38.7(21.2)
	일요일	40(13.5)	21(11.9)	19(15.8)	60.7(13.1)	31.4(11.1)	29.3(16.1)
계	296(100.0)	176(100.0)	120(100.0)	464.4(100.0)	281.6(100.0)	182.8(100.0)	
1일 평균		0.81	0.48	0.33	1.27	0.77	0.50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 KBS와 SBS의 TV 저녁종합뉴스에서 보도된 농업분야 총 아이템 수는 총 296건이었으며, SBS(120건)보다는 KBS(176건)가 1.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하루 평균 보도 아이템수로 변환하면, KBS는 1일 평균 0.48건, SBS는 0.33건의 농업분야 아이템을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1월, KBS 1일 평균 보도 아이템 수가 35.6건인 연구결과(이준웅·황유리, 2004)와 비교하면, 농업분야 보도는 74건 중에

1건 꼴로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간의 분석기간 동안 총 방송시간으로 본 농업분야 보도 분량은 464.4분으로 약 7.7시간이었으며 이 역시 SBS(182.8분) 보다는 KBS(281.6분)가 1.54배 더 많은 시간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하루 평균 보도시간으로 환산하면, KBS는 1일 평균 0.77분, SBS는 1일 평균 0.5분 동안 농업분야 뉴스를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KBS 9시 뉴스’의 1일 평균 보도시간은 45.7

분(이준웅·황유리, 2004)이었는데, 본 조사 결과 나타난 농업 분야 보도의 1일 평균 보도시간은 0.77분으로 전체의 1.68%라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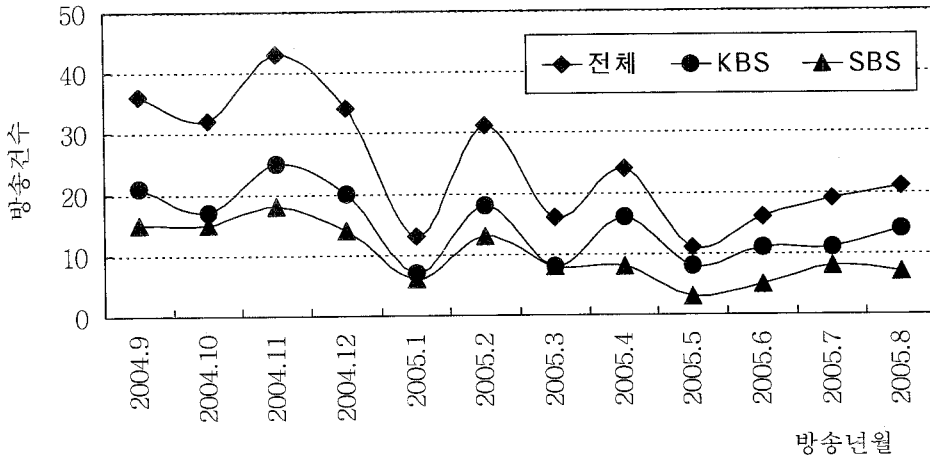


〈그림 1〉 방송사별 TV뉴스에서 1일 평균 농업분야 방송시간

이는 하루 채 1분도 보도되지 않는 미미한 분량이며, 보도 빈도수를 기준으로 농림수산업 관련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8% 이하로 조사된 기존 연구 결과(손승혜, 1999; 이준웅·황유리, 2004)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SBS 8시 뉴스’의 1일 평균 보도시간은 42.2분으로 전체 보도에서 농업 분야 보도에 할애되는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방송 뉴스가 농업 분야 보도에 인색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민영방송인

SBS가 공영방송인 KBS에 비해 더욱 적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업분야 각각의 뉴스 아이템들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보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뉴스 아이템 1건당 평균 보도시간을 계산한 결과, KBS는 96초, SBS는 91초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방송시기별로 농업분야 보도 아이템 수를 살펴보면, 2004년 11월(14.5%)과 9월(12.2%)에 그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경향이 KBS와 SBS간에 차이가 없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방송시기에 따른 TV뉴스 농업분야 아이템수

전반적으로 2004년에는 매월 30건 이상의 농업 관련 방송 뉴스가 보도되었으나 2005년에 들어서는 2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30건 이하의 낮은 방송 보도 빈도수를 기록, 2004년과 2005년간의 연도별 방송 보도 횟수의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2004년 하반기에 쌀 개방 관련 보도가 집중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방송시간은 아이템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이템수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방송요일별로는 아이템수와 방송기간의 비율에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뉴스 아이템들은 중요도에 따라 보도순서가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중요

도가 높은 아이템들이 초반부에 보도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업분야 아이템은 하루 전체 뉴스 아이템 중에서 어느 순서에서 보도되는지를 〈표 2〉와 같이 살펴보았다. KBS 뉴스에서 1일 평균 보도되는 아이템수가 35.6건(이준웅·황유리, 2004)이라 하는데, 농업분야 보도 아이템의 40.2%는 중반부(11~20번째)에, 30.4%는 초반부(1~10번째), 29.4%는 후반부(21번째 이후)에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KBS는 후반부에 보도되는 비율(36.9%)이 가장 높은 반면, SBS는 중반부에 보도되는 비율(47.5%)이 가장 높았다.

〈표 2〉 TV방송뉴스에서의 농업분야 보도순서

구 분	단위 : n(%)		
	전 체 (N=296)	KBS (N=176)	SBS (N=120)
초반부(1~10번째)	90(30.4)	49(27.8)	41(34.2)
중반부(11~20번째)	119(40.2)	62(35.2)	57(47.5)
후반부(21번째 이후)	87(29.4)	65(36.9)	22(18.3)
평균(표준편차)	15.38(8.07)	16.34(8.49)	13.97(7.22)

〈표 3〉 TV방송뉴스에서 농업분야 뉴스의 보도형식

구 분	단위 : n(%)		
	전 체 (N=296)	KBS (N=176)	SBS (N=120)
기자현장 리포팅	201(67.9)	113(64.2)	88(73.3)
집중(심층)취재	49(16.6)	34(19.3)	15(12.5)
앵커단신	24(8.1)	16(9.1)	8(6.7)
기동취재(현장출동)	13(4.4)	8(4.5)	5(4.2)
기자단신	9(3.0)	5(2.8)	4(3.3)

평균 보도순서는 15.4번째였고, KBS는 16.3번째, SBS는 14번째였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뉴스는 어떤 형식으로 보도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표 3〉), 단연 ‘기자현장 리포팅’이 67.9%로 전체 아이템의 약 2/3를 차지하였으며, ‘집중(심층)취재(16.6%)’, ‘앵커단신(8.1%)’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보도 형식을 살펴보면, ‘기자현장 리포팅’은 SBS(73.3%)가 KBS(64.2%)보다 더 많은 반면, ‘집중(심층)취재’는 SBS(12.5%)보다 KBS(19.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업분야 방송 뉴스의 내용적 특성

1) 뉴스의 주제

먼저, 농업분야 보도의 주제영역을 〈표 4〉와 같이 살펴보았다. 농업분야 보도의 경우, 사회뉴스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29.7%), 지역(12.5%), 국제(8.1%), 정치(5.4%), 건강과학(5.1%), 문화(3.0%)의 순이었다. 방송사별로는 KBS의 경우 농업분야 보도에서 경제뉴스(33.0%)가 가장 많은 반면, SBS는 사회뉴스(45.8%)가 우세하였다. 우리나라 방송뉴스가 정치·경제 뉴스 중심의 뉴스 구성을 보이는(이준용·황유리, 2004) 것에 비해, 농업분야 보도는 사회·경제 뉴스 중심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4〉 TV방송뉴스에서의 농업분야 보도주제

변 수	구 분	단위 : n(%)		
		전 체 (N=296)	KBS (N=176)	SBS (N=120)
주제영역	정 치	16(5.4)	9(5.1)	7(5.8)
	경 제	88(29.7)	58(33.0)	30(25.0)
	사 회	107(36.1)	52(29.5)	55(45.8)
	지 역	37(12.5)	27(15.3)	10(8.3)
	문 화	9(3.0)	7(4.0)	2(1.7)
	건강과학	15(5.1)	7(4.0)	8(6.7)
	국 제	24(8.1)	16(9.1)	8(6.7)

세부주제*	정부정책	89(30.1)	56(31.8)	33(18.4)
	시장개방	75(25.3)	45(25.6)	30(16.8)
	농축산물생산	60(20.3)	28(15.9)	32(17.9)
	농촌사회	59(19.9)	41(23.3)	18(10.1)
	해외농업	40(13.5)	25(14.2)	15(8.4)
	생태환경	33(11.1)	17(9.7)	16(8.9)
	식품관련	18(6.1)	10(5.7)	8(4.5)
	신기술개발	16(5.4)	7(4.0)	9(5.0)
	농축산물가격유통	15(5.1)	7(4.0)	8(4.5)
	경영혁신사례	9(3.0)	3(1.7)	6(3.4)
	도농교류	9(3.0)	5(2.8)	4(2.2)

* 다중응답 코딩

다음으로, 내용 분석을 통하여 기사의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 다루어지는 세부주제들을 다중응답 코딩하여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세부주제로는 정부정책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개방(25.3%), 농축산물생산(20.3%), 농촌사회(19.9%), 해외농업(13.5%), 생태환경(11.1%), 식품관련(6.1%), 신기술개발(5.4%), 농축산물 가격·유통(5.1%), 경영혁신사례(3.0%), 도농교류(3.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과 시장개방

뉴스가 많은 이유는 분석기간 동안 DDA 협상 시한이 2004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방송사별로 농업분야 보도내용의 세부주제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KBS는 SBS에 비해 정부정책, 농촌사회, 시장개방, 해외농업 주제들의 보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SBS는 KBS에 비해 풍·흉작, 자연재해, 수입개방피해 등 농축산물 생산과 관련한 주제의 보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초반부 등장 농업분야 뉴스의 세부주제*

구 분	단위 : n(%)		
	전 체 (N=90)	KBS (N=49)	SBS (N=41)
정부정책	41(45.5)	18(36.7)	23(56.1)
시장개방	35(38.9)	16(32.7)	19(46.3)
농축산물생산	19(21.1)	6(12.2)	13(31.7)
농촌사회	16(17.8)	13(26.5)	3(7.3)
해외농업	13(14.4)	6(12.2)	7(17.1)
생태환경	6(6.7)	4(8.2)	2(4.9)
식품관련	2(2.2)	1(2.0)	1(2.4)
신기술개발	2(2.2)	0(0.0)	2(4.9)
농축산물가격·유통	1(1.1)	1(2.0)	0(0.0)
경영혁신사례	0(0.0)	0(0.0)	0(0.0)
도농교류	0(0.0)	0(0.0)	0(0.0)

* 다중응답 코딩

뉴스 초반부에 다루어지는 아이템들은 중·후반부에 보도되는 아이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사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TV 방송뉴스 초반부에 보도되는 농업분야 아이템들은 주로 어떤 세부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를 다중응답 코딩하여 살펴보았다(〈표 5〉 참조). 세부주제로는 정부정책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개방(38.9%), 농축산물생산(21.1%), 농촌사회(17.8%) 순으로 전체 아이템들의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농업분야 뉴스 아이템들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정부정책과 시장개방의 주제가 특히 초반부에서 더 많이 보도되어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KBS는 SBS에 비해 뉴스 초반부에 농촌사회 주제의 보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부정책, 시장개방, 농축산물 생산, 해외농업 주제의 보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뉴스기사의 심층성

기사의 심층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손승혜(1999), 이준웅과 황유리(2004)가 사용한 분석유목을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분석유목은 ① 과정/결과, ② 원인+과정/결과,

③ 과정/결과+반응, ④ 원인+과정/결과+반응, ⑤ 원인+과정/결과+반응+대안 등 5가지 범주로, ①에서 ⑤로 갈수록 뉴스가 제시하는 사건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원인과 반응, 그리고 대안을 더욱 심층적으로 구성한 뉴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소값 폭락'에 대한 뉴스기사를 심층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2004년 10월19일 보도된 KBS의 '채소값 폭락, 밭 갈아엎은 농심'(〈사례 1〉 참조)과 같이 채소값 폭락의 원인과 과정/결과만으로 마무리된 경우는 분석 유목 가운데 '② 원인+과정/결과'에 해당되어 단순기사로 분류되었다. 반면 2004년 12월12일에 보도된 KBS의 '널뛰는 배추값, 수급대책 있다'의 경우(〈사례 2〉 참조)에는 위의 채소값 폭락 기사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가격 폭락의 원인과 결과만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소값 폭락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분석 유목 가운데 '⑤ 원인+과정/결과+반응+대안'에 해당되어 복합성이 높은 심층기사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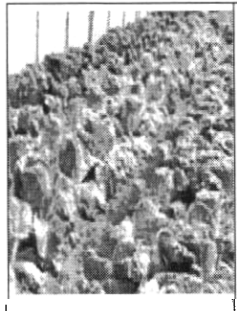
<사례 1>

뉴스기사의 심층성(원인 + 과정 / 결과)

	<p>채소값 폭락, 밭 갈아엎은 농심(KBS, 2004. 10. 19)</p> <p>⊙ 앵커: 요즘 채소농가들이 가격폭락으로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아예 밭을 갈아엎은 농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앵커: 요즘 채소</p> <p>결과 (밭 갈아엎음) ↑ 원인 (채소값 폭락) ↓ 과정 / 결과 (막심한 손해)</p>	<p>⊙ 기자: 정성스럽게 키운 열갈이가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찢어진 잎과 뿌리조각만이 남습니다. 200여 평의 초록빛 채소밭이 5분도 지나지 않아 황토빛으로 변합니다.</p> <p>⊙ 조규천(채소재배농민): 갈아엎을 때는 진짜 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돈에 얽매이기 때문에……(중략)</p> <p>⊙ 기자: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채소값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4kg들이 열무 한 박스는 지난해 이맘때 2000원이 넘었지만 요즘은 800원 정도에 팔립니다. 원가가 200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스당 1000원 넘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수확을 하는 농민들도 마음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중략)</p> <p>⊙ 기자: 속절없이 떨어지는 채소가격에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p>

<사례 2>

뉴스기사의 심층성(원인 + 과정 / 결과 + 반응 + 대안제시)

	<p>넌뛰는 배추값, 수급대책 있다(KBS, 2004. 12. 12)</p> <p>⊙ 앵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값 때문에 주부들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추 기르는 농민들인데 배추값의 널뛰기가 워낙 심하다 보니 농사 짓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김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원인 (불안정한 가격) ↓ 과정 / 결과 (농사는 투기판) ↓ 반응 (전문가 조언) ↓ 대안제시 1.유통명령제 2.출하시기조절 3.정확한 수요 예측</p>	<p>⊙ 기자: 김장배추 재배 농가의 가장 큰 걱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가격입니다.</p> <p>⊙ 백국부(대전시 세동): 배추가격이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불안.</p> <p>⊙ 기자: 최근 몇 년간 배추값은 2년을 주기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어 김장배추 농사는 사실상 투기판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농가 스스로 출하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p> <p>⊙ 김철호(충남대 농대 교수): 생산자들이 어떤 연합회 형식으로 결집을 해서 그러한 연합회를 통해서 과잉조짐이 있다 하면 스스로 산지 해결을 하고.</p> <p>⊙ 기자: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우려되면 품질이 나쁜 물량은 강제로 폐기시키는 유통명령제 도입도 검토할 만합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귤농민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유통명령제를 실시해 가격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배추의 저장성을 높여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농가와 같이 배추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출하기간을 두 달 이상 연장시켜 홍수출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절임배추가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산 김장배추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가격안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p>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TV 방송뉴스에서 농업분야 보도 전체 아이템 296건 중에서 사건의 '과정/결과, 원인과 과정/결과'만을 제시한 단순기사가 182건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고, '과정/결과와 반응'을 제시한 기사는 24건(8.1%), '원인과 과정/결과와 반응'을 동시에 제시한 기사는 73건(24.7%)이었다. 마지막

로 원인과 과정/결과, 반응, 그리고 대안까지 모두 제시한 심층적인 기사는 17건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였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SBS에 비해 '과정/결과'만을 제시한 단순보도 비율은 적은 반면, '원인과 과정/결과, 반응, 대안'을 제시한 심층기사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TV방송뉴스에서 농업분야 뉴스의 심층성

구 분	단위 : n(%)		
	전 체 (N=296)	KBS (N=176)	SBS (N=120)
과정 / 결과	66(22.3)	32(18.2)	34(28.3)
원인+ 과정 / 결과	116(39.2)	74(42.0)	42(35.0)
과정 / 결과+ 반응	24(8.1)	14(8.0)	10(8.3)
원인+ 과정 / 결과+ 반응	73(24.7)	41(23.3)	32(26.7)
원인+과정 /결과+ 반응+ 대안	17(5.7)	15(8.5)	2(1.7)

3) 뉴스의 정보채널

본 연구에서는 뉴스내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뉴스 정보원의 선택을 보기위해, 뉴스의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확인된 정보채널'과 인터뷰 대상자 및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을 탐색해 보았다. 강명구(1990)는 정보채널을 '사건이나 현상이 기사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수집되는 통로의 유형'이며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보원과 접촉하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먼저, TV 방송뉴스에서 농업보도의 정보채널을 다중응답 코딩하여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내용분석 과정에서 한 기사에서 분명하게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이 활용되었을 경우에는 복수로 채택하였다. 활용된 정보채널로는 인터뷰, 기자의 분석, 자료조사의 능동적 채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정된 이벤트, 보도자료, 공식절차의 정규채널 활용이 많았으며, 배경설명, 폭로 등의 비정규채널 활용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농업분야 보도에서 '인터뷰'를 활용한 아이템의 비율은 78.7%로 주요인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TV방송뉴스에서 농업분야 뉴스의 정보채널

단위 : n(%)

종 류	구 분	전 체 (N=296)	KBS (N=176)	SBS (N=120)
능동적 채널	인터뷰	233(78.7)	135(76.7)	98(81.7)
	기자의 분석	181(61.1)	108(61.4)	73(60.8)
	자료조사	98(33.1)	61(34.7)	37(30.8)
	돌발사건	9(3.0)	9(5.1)	0(0.0)
정규채널	예정된 이벤트	52(17.6)	26(14.8)	26(21.7)
	보도자료	50(16.9)	30(17.0)	20(16.7)
	공식절차	36(12.2)	21(11.9)	15(12.5)
	기자회견	10(3.4)	5(2.8)	5(4.2)
비정규채널	배경설명	14(4.7)	8(4.5)	6(5.0)
	타언론인의 발언	2(0.7)	2(1.1)	0(0.0)
	폭 로	1(0.3)	1(0.6)	0(0.0)
	비공식모임	1(0.3)	0(0.0)	1(0.8)

* 다중응답 코딩

다음으로는 ‘기자의 분석’(61.1%), ‘자료조사’(33.1%), ‘예정된 이벤트’(17.6%), ‘보도자료’(16.9%)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SBS가 KBS에 비해 예정된 이벤트를 활용한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TV 방송 뉴스에서 농업분야 대부분의 뉴스 수집은 인터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보채널인 인터뷰의 대상자가 누구이며 그들로부터 얻는 정보의 성격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표 8〉 참조). 이때, 총 농업보도 아이템 296건 중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없었던 보도 건수는 총 42건(14.2%)이었으며, SBS(7.5%)보다는 KBS(18.8%)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가 없었던 보도 42건을 제외한 254건의 농업분야 보도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총수는 584명이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인이 42.0%

가장 많았고 전문가(21.9%), 정부관계자(13.5%), 농업관련 산업종사자(6.5%), 도시소비자(4.8%), 유통업자(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방송사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얻는 정보의 성격을 ‘주로 정보적’, ‘주로 분석적’, ‘주로 평가적’, ‘주로 감성적’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갈등적 사안에 대한 TV 방송뉴스의 인터뷰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한국언론학회, 2004)의 분석 유목을 참조한 것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말이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이면 ‘주로 정보적’,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하고 있다면 ‘주로 분석적’, 사실의 제시 없이 평가를 하고 있다면 ‘주로 평가적’, 울분을 토로하거나 기뻐하는 등 감정적, 정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주로 감성적’으로 기입했다.

〈표 8〉 TV방송뉴스에서 농업분야 뉴스 인터뷰

단위 : n(%)

변 수	구 분	전 체 (N=254)	KBS (N=143)	SBS (N=111)
인터뷰대상*	농업인	245(42.0)	136(40.7)	109(43.6)
	전문가	128(21.9)	78(23.4)	50(20.0)
	정 부	79(13.5)	51(15.3)	28(11.2)
	농관련산업종사자	38(6.5)	25(7.5)	13(5.2)
	도시소비자	28(4.8)	16(4.8)	12(4.8)
	유통업자	19(3.3)	5(1.5)	14(5.6)
	시민단체	10(1.7)	5(1.5)	5(2.0)
	기 타	37(6.3)	18(5.4)	19(7.6)
	없음**	42(14.2)	33(18.8)	9(7.5)
인터뷰의 정보특성*	주로 정보적	131(22.4)	93(27.8)	38(15.2)
	주로 분석적	214(36.6)	117(35.0)	97(38.8)
	주로 평가적	167(28.6)	85(25.4)	82(32.8)
	주로 감성적	72(12.3)	39(11.7)	33(13.2)

* 다중응답 코딩이며, 수치는 전체 농업보도 아이টে에 등장하는 인터뷰대상자 총수(전체 584명, KBS 334명, SBS 250명) 중에서 각각 해당하는 인터뷰대상자의 수 및 비율임

** 전체 농업분야 보도건수(296건) 중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없는 보도건수 및 비율임

그 결과 TV 방송뉴스 농업보도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얻는 정보의 성격은 '주로 분석적'인 비율이 36.6%로 가장 많았고 '주로 평가적'은 28.6%, '주로 정보적'은 22.4%, '주로 감성적'은 12.3%이었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SBS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뷰의 성격이 '주로 정보적'인 비율이 높고 '주로 평가적'인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뷰의 성격은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 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자 별 정보의 성격을 〈표 9〉와 같이 살펴보았다.

농업인은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적(39.2%)이거나 감성적(23.7%)인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가, 농업관련 산업종사자, 정부 등은 정보적이거나 분석적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소비자의 경우 인터뷰 대상으로서 등장하는 빈 도는 낮았으나 일단 인터뷰 대상이 되었을 경 우 평가적(67.9%)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 데, 이는 농업 분야 기사에 있어 도시 소비자가 상품 구매자로서 주로 상품에 대한 평가와 비 평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9> 농업분야 뉴스에서 인터뷰대상과 정보성격 관련성*

단위 : n(%)

대 상 \ 성 격	정보적	분석적	평가적	감성적	전 체*
농업인	40(16.3)	51(20.8)	96(39.2)	58(23.7)	245(100.0)
전문가	37(28.9)	85(66.4)	5(3.9)	1(0.8)	128(100.0)
정 부	31(39.2)	29(36.7)	18(22.8)	1(1.3)	79(100.0)
농관련산업종사자	12(31.6)	21(55.3)	5(13.2)	0(0.0)	38(100.0)
도시소비자	1(3.6)	4(14.3)	19(67.9)	4(14.3)	28(100.0)
유통업자	3(15.8)	8(42.1)	7(36.8)	1(5.3)	19(100.0)
시민단체	1(10.0)	5(50.0)	4(40.0)	0(0.0)	10(100.0)
기 타	6(16.2)	11(29.7)	13(35.1)	7(18.9)	37(100.0)
계	131(22.4)	214(36.6)	167(28.6)	72(12.3)	584(100.0)

* 다중응답 코딩이며, 수치는 전체 농업보도 아이টে 등장하는 인터뷰대상자 총수(전체 584명) 중에서 각각 해당하는 인터뷰대상자의 수 및 비율임

4) 뉴스가치

뉴스가치는 중요도와 관여도에 대한 기자의 관행적인 판단기준으로, 특정 사건이 뉴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뉴스내용의 사회적 관련성을 구성한다(Shoemaker, 1996; Merrill, 1997). 따라서 뉴스가치는 뉴스의 내용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뉴스내용에 반영된 뉴스가치의 구성요소들을 관찰함으로써 내

용적 특성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hoemaker(1996), 이준웅과 황유리(2004)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뉴스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영향성, 갈등성, 영상적 볼거리, 인간적 흥미, 신기성, 부정성, 유용성의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TV 방송뉴스에서 농업분야 보도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표 10> TV방송뉴스에서 농업분야 뉴스의 가치구성요소

단위 : n(%)

구 분	전 체 (N=296)	KBS (N=176)	SBS (N=120)
시의성	125(42.2)	76(43.2)	49(40.8)
부정성	122(41.2)	70(39.8)	52(43.3)
영향성	111(37.5)	71(40.3)	40(33.3)
유용성	26(8.8)	14(8.0)	12(10.0)
영상적 볼거리	26(8.8)	14(8.0)	12(10.0)
갈등성	24(8.1)	15(8.5)	9(7.5)
신기성	24(8.1)	14(8.0)	10(8.3)
인간적 흥미	23(7.8)	18(10.2)	5(4.2)
근접성	8(2.7)	3(1.7)	5(4.2)
저명성	5(1.7)	3(1.7)	2(1.7)

* 다중응답 코딩

〈표 10〉에서 보여주듯이, TV 방송뉴스 농업 분야 보도 아이템 중 42.2%가 시의성, 부정성 41.2%, 37.5%가 영향성을 주요 뉴스가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8.8%가 각각 유용성, 영상적 볼거리를 가진 기사였다. 이준웅과 황유리(2004)의 연구결과를 보면, KBS 뉴스 아이템의 87.6%가 시의성을 가진 기사였으나, 농업분야 보도에서의 시의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체 뉴스아이템 중 부정성의 아이템은 33.1%였으나(이준웅·황유리, 2004), 본 연구에서는 수입개

방과 관련한 부정적 이슈와 자연재해 등 사건, 사고를 주로 다루고 있어 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별로 농업분야 뉴스의 가치구성 요소 비율을 비교해보면, KBS는 SBS보다 상대적으로 시의성을 가진 아이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부정성을 가진 아이템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반부에 등장하는 뉴스는 뉴스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초반부에 보도된 농업분야 뉴스의 가치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표 11〉 참조).

〈표 11〉 초반부 등장 농업분야 뉴스의 가치구성요소

단위: n(%)

구 분	전 체 (N=90)	KBS (N=49)	SBS (N=41)
시의성	61(67.8)	35(71.4)	26(63.4)
부정성	33(36.7)	14(28.6)	19(46.3)
영향성	28(31.1)	14(28.6)	14(34.1)
유용성	1(1.1)	1(2.0)	0(0.0)
영상적 볼거리	11(12.2)	9(18.4)	2(4.9)
갈등성	17(18.9)	10(20.4)	7(17.1)
신기성	24(26.7)	14(28.6)	10(24.4)
인간적 흥미	3(3.3)	2(4.1)	1(2.4)
근접성	0(0.0)	0(0.0)	0(0.0)
저명성	0(0.0)	0(0.0)	0(0.0)

* 다중응답 코딩

농업분야 전체 아이템에서 보이는 뉴스의 가치구성요소 비율이 부분적으로 달랐는데, 첫째, 시의성(67.8%), 부정성(36.7%), 영향성(31.1%) 순으로 주요 뉴스가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의성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업분야 전체 아이템에서는 별로 중시되지 않은 뉴스가치요소였던 신기성(26.7%)이 초반부에 등장하는 뉴스아이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갈등성(18.9%)과 영상적 볼거리(12.2%)도 강조되었다. 방송사별로는 KBS의 경우 SBS보다 상대적으로 시의

성을 가진 아이템의 비율이 높은 반면, SBS는 부정성과 영향성을 가진 아이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업분야 방송 뉴스 도식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TV 방송 저녁종합뉴스에서 농업분야 보도의 방송사별 정형화된 도식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각 방송사가 할애하고 있는 농업 분야 보도 분량은 1일 평균 KBS 0.77분,

SBS 0.5분으로 전체 보도 분량의 2% 미만(1.18~1.68%)이었다. 둘째, 보도 순서에서는 농업 분야 기사의 2/3 이상이 중·후반부에 보도되어 보편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아이টে็ม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친 보도를 하지만 특히 경제와 사회 뉴스가 약 62.5%를 차지하였고, 세부주제로는 정부정책, 시장개방, 농촌사회 이슈에 주목하였다. 넷째, 기사의 복합성면에서 전체의 61.5%가 사건의 '과정/결과, 원인과 과정/결과'만을 제시한 단순기사로 밝혀졌고, '원인과 과정/결

과, 반응, 대안'까지 제시한 심층기사의 비율은 5.7%에 불과해 농업 분야 기사의 심층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농업 분야 기사는 인터뷰와 기자의 분석, 자료조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정보채널 면에서 방송사의 능동적 채널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뉴스 가치에 있어서 시의성과 영향성, 부정성이 높고, 갈등성과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2>는 내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분야 방송뉴스의 도식'을 정리해 본 것이다.

<표 12> 농업분야 방송 뉴스의 도식

형 식	보도시간	1일 평균 KBS 0.77분, SBS 0.5분 (전체 보도 시간 중 2%미만 비율)
	보도순서	중·후반부 배치
내 용	뉴스주제	경제·사회 중심
	기사 복합성	과정/결과 위주, 반응·대안 제시 미흡
	정보채널	인터뷰와 기자의 자료조사 중심
	뉴스 가치	시의성, 영향성, 부정성이 높고 갈등성, 유용성은 낮음

특히 보도시간 면에서 농업 분야 기사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언론의 현실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사안이 '얼마나 많이(how much), 얼마나 현저하게(how prominently)' 기사화되었는지가 바로 그 사안의 '중요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Entman, 1991)²⁾. 이러한 점에

서 농업 분야 기사는 방송 뉴스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할애 받고 있으며, 보도 순서 면에서도 중·후반부에 배치되는 등 '두드러지지 못한' 기사로 취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농업 분야 방송뉴스의 도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선행 연구(이준웅·황유리, 2004)에서 제시한 '한국형 방송 뉴스의 도식'과 비교·검토해 본 결과, 농업 분야 방송 뉴스는 일반적인 방송 뉴스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뉴스 주제면에서 전반적

2) Entman(1991)은 KAL기 폭파 사건과 이란기 폭파사건에 대한 미국 언론의 뉴스 프레임 분석 첫 단계로 'Size'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특정 사안에 해당하는 뉴스의 Size야 말로 해당 언론사의 사안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분석결과, 미국의 'Time'과 'Newsweek'지는 KAL기 폭파사건을 이란기 사건에 비해 2.5배나 많은 페이지에 보도했고,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타임즈'도 각각 KAL기 사건에 2배

이상 많은 지면을 편집했다. 방송에서 CBS는 뉴스에서 KAL 사건에 총 303분을, 이란기 사건에는 204분을 배당, 미국의 신문과 방송 모두 KAL기 사건을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했음을 입증했다.

인 한국 방송 뉴스는 국내 정치와 경제, 그리고 범죄와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뉴스는 사회 뉴스(36.1%)와 경제(29.7%) 뉴스가 가장 많아 사회·경제 뉴스 중심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사의 복합성 면에서 전반적인 한국 방송 뉴스는 단순 기사 중심으로 심층성이 떨어지는 데³⁾, 이러한 경향은 농업 분야 보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셋째, 정보 채널 면에서 전반적인 한국 방송 뉴스는 보도 자료와 인터뷰 중심의 자료로 구성, 기자의 자료조사나 분석 등 능동적인 채널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농업 분야 뉴스는 인터뷰와 기자의 자료조사 등 능동적인 채널 활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농업 분야 뉴스의 속성상 단순보도 자료에 의존해서는 취재 자체가 쉽지 않으며, 기자의 능동적인 자료수집과 인터뷰, 분석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기자들의 사전지식과 포괄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지적(Trew, 1979a)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넷째, 뉴스 가치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한국 방송 뉴스는 부정성이 높고 갈등성이 낮은 전형적인 '부정적 보도'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농업 분야 뉴스 보도 역시 부정성이 높고 갈등성이 낮은 양상이었다. 다만 부정성 뿐 아니라 시의성과 영향성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쌀 시장개방'에 대한 시위 보도와 분석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보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 방송 뉴스 도식에 있어서 방송사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공영방송사

인 KBS의 'KBS 9시 뉴스'와 민영방송사인 SBS의 'SBS 8시 뉴스'는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보도 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농업 보도에 있어 형식적, 내용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형식적 특성에서, KBS는 연간 농업분야 뉴스 건수가 총 176건으로 1일 평균 0.48건이며 전체 뉴스아이템 중에서 평균 16.3번째에 보도 1건당 평균 94초 방송되는 특징을 보이며, 뉴스의 보도형식은 앵커의 도입과 기자현장 리포팅으로 구성된 전형적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반면, SBS는 연간 농업분야 뉴스 건수가 120건으로 1일 평균 0.33건이며, 13.9번째에 91초 동안 방송되며, 뉴스의 주요 보도형식은 KBS와 동일하였다. 둘째, 내용적 특성에서는 KBS의 경우, 다양한 주제영역에 걸친 보도를 하지만, 특히 경제, 사회뉴스가 약 62.5%를 차지하고 세부주제로는 정부정책, 시장개방, 농촌사회 이슈에 주목하였고, 원인과 과정, 결과와 반응 및 대안까지 심층적 분석에 근거한 심층기사는 제한되어 있었다.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중심으로 보도내용을 구성하며, 뉴스가치에 있어서는 시의성, 영향성, 부정성은 높고 갈등성과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 한편 SBS는 사회뉴스가 45.8%로 다수를 차지하고 정부정책, 농축산물 생산, 시장개방, 농촌사회 등의 이슈를 고르게 다루고 있으며, KBS보다 단순기사는 많은 반면, 심층기사는 훨씬 제한되어 있었다. KBS와 마찬가지로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중심으로 보도내용을 구성하며 뉴스가치에 있어서도 시의성, 영향성, 부정성은 높고 갈등성과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 잇따른 개방일정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3) 이준용·황유리(2004)는 각국의 TV 뉴스기사 심층성 분석을 통해 한국 방송 뉴스의 52.2%가 과정/결과만을 제시한 단순기사이며 원인과 과정/결과, 반응 그리고 대안까지 모두 제시한 심층적인 기사는 3.9%에 불과, 영국의 BBC나 미국의 ABC에 비해 심층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지적했다.

농업 정책과 농촌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다수의 연구들(김중숙·민상기, 1994; 농협중앙회, 1997; 농업인의날추진위원회, 1999; 박대식·김정호, 1999; 오세익, 200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2002; 오세익·김동원·박해진, 2004)이 농업 현실에 대한 여론 형성에 있어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KBS 9시 저녁뉴스와 SBS 8시 저녁 뉴스 중 농업 관련 기사로 분류되는 뉴스 아이템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 동안 방송된 농업 관련 방송 뉴스 총 296개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TV 방송 뉴스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배분하고 있었다. 농업분야 보도 아이템수는 KBS의 경우 1일 평균 0.48건, SBS는 0.33건으로 2-3일에 1건꼴로 보도되고 있었고, 농업분야 보도 분량은 1일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KBS 0.77분, SBS 0.5분으로, KBS 1일 평균 보도시간 45.7분(이준웅·황유리, 2004) 가운데 채 1분도 보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 뉴스의 경우 중요도에 따라 보도순서가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농업분야 뉴스아이템들의 경우 2/3 이상이 중·후반부에 보도되고 있어 보편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아이템으로 보도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사의 심층성면에서도 전체의 61.5%가 사건의 '과정/결과, 원인과 과정/결과'만을 제시한 단순기사인 것으로 밝혀졌고, '원인과 과정/결과, 반응, 대안'까지 제시한 심층기사의 비율은 5.7%에 불과해 TV방송뉴스에 비취진 농업분야의 현실은 사건과 문제만 제시될 뿐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는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농업뉴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피상적이고 농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결여된 채 틀에 박힌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문제제기가 TV 방송 뉴스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저널리즘 측면에서 농업 관련 뉴스는 출처에 있어 정부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적인 뉴스 수집 '망' 바깥쪽에 있어 취재가 어렵다는 점, 기자들의 농업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과 포괄적인 이해 등이 부족하다는 점, 도시민 수용자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보도 관행 속에 농업뉴스는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속한 요소로 분류된다는 점 등의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1)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농업 분야 주체들의 대중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노력 제고 2) 일반적인 저널리즘에 기초를 하면서도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농업 전문 저널리스트의 양성 3) 도시민 편중이나 농업인 편중이 아니라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관련 뉴스' 포맷 및 접근방식 개발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실천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농업 관련 뉴스 도식'을 결정짓는 조직관행, 기자개인의 성향, 취재원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 분석이 이뤄진다면 농업 분야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VI. 참고문헌

- 강만석. (1999). 텔레비전 뉴스보도 대안모색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나남.
- 권일남. (1987). 농민의 TV 농가방송 시청실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화섭, 최익수. (1982). 농업시책의 효과적 수행과 홍보: KBS TV 농가방송 시청반응조사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5(1), 90~96.
- 김선요. (1976). 독농가의 매스컴 접촉실태 분석.

- 한국농업교육학회지, 8(1), 79~84.
- 김연중. (1994). 뉴스의 객관성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한국언론학보*, 31(봄), 57~58.
- 김종숙, 민상기. (1994). 농업에 대한 국민 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지운, 방정배, 이효성 등. (1991). 비판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
- 김태홍(2003). 신문-시급한 소유구조 분산. *관훈저널*, 2003(가을).
- 노광준, 김성수. (2003). 다채널시대 농업전문방송 채널에서의 공익성 실현 탐색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0(2), 229~237.
-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1999).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 농협중앙회. (1997).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농협중앙회.
-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응진. (2004). 농업개방과 관련된 한국 언론보도의 문제점 분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손승혜, 이창현. (1999). TV 저널리즘과 뉴스가치 (I): 한국, 영국, 미국의 TV 뉴스 내용분석. 한국언론재단.
-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석원. (2004). 주요 신문사의 쌀 관련 보도 실태분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한국 언론에는 농업이 없다: 농업개방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11~26.
- 윤호진, 이동훈. (2004). 한국·영국·일본 공영방송 저녁종합뉴스 비교 분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이민용. (1991). 한국 방송의 취재·보도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 이재경. (2004). 한국 TV뉴스 양식과 취재시스템: 그 특성과 한계. 제3차 언론학포럼: 전환기의 한국형 방송저널리즘 자료집.
- 이준웅, 황유리. (2004). 한국형 방송 뉴스 도식의 발견: 뉴스의 내용적이며 구성적 특성과 뉴스 제작 시스템. *한국방송학보*, 18(3), 232~292.
- 장호순. (2003). 농어민들에게 ‘밝아오는 새아침’을. *동부신문* 2003.7.16.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2002). 농업·농촌에 대한 전북도시민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언론학회. (2004). 대통령 탄핵관련 TV방송 내용분석. 한국언론학회.
- 한국방송광고공사(2004). 2004MEDIA& CONSUMER: 매체 및 제품이용행태연구. 한국방송공사
- Balter, M. (1993). Does anyone get GATT?. *Columbia Journalism Review*, May/June 1993: 46~49.
- Bennett, T. (1982).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 Entman, R. (1991). Framing U. 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38.
- Gitlin, T.(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 S., Connell, I., & Curti, L. (1977). The ‘unity’ of public affairs television.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9, 51~94.
- Hays, R. G. (1992). Event Orientation and Objectivity as Ethical Issues in Media Coverage of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11(2), 60~66.
- Hilgren, S. (1989). Agricultural Reporting: An important beat with a need for experienced reporters. *Editor & Publisher*, 30(Sept.), 19-36.

- Hilliard, R. L. (1999). *Farm and Rural Radio: Some Beginnings and Models*.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Farm Radio Broadcasting, FAO.
- Nerlich, B. (2004). War on foot and mouth disease in the UK, 2001: Towards a cultural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1, 15~25.
- Pawlick, T. F. (1998). The Invisible Farm, *Journal of Communication*, 32, 6~27.
- Reisner, A., & Walter, G. (1994). Agricultural Journalists' Assessments of Print Coverage of Agricultural News. *Rural Sociology*, 59(3), 525~537.
- Walter, G. A. (1992). Communication and Sustainable Agriculture: Building Agendas for Research and Practice.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9(1), 27~37.
- Williams, R.(1993).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The Hogarth Press.
- www.terrami.org/agroinfor/docu_view.html?cid=1369.(2005. 3. 30). 프랑스 농림부 2001년도 프랑스인들의 농업에 대한 여론조사. (2006년 4월 13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